

<b>2026년 7월, 출범 확정</b> <b>제물포구·영종구</b> <b>서구·검단구</b>		<h1>보 도 자 료</h1>		<i>이제는 인천입니다</i> <b>2025 APEC INCHEON</b>	
		배포일자	2024년 4월 24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관광마이스과	담 당 자	• 관광마이스산업팀장 김봉희 ☎440-4101 • 담당자 박경애 ☎440-41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6년 연속 문체부 공모 선정

- 2024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국비 6억4천만 원 확보 -
- 홍보·유치 마케팅, 관광프로그램 개발,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추진 -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총 12억 8천만 원(국비 6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2018년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일원(2.98km<sup>2</sup>)이 지정돼 2019년부터 6년 연속 복합지구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마이스(MICE) 트렌드 분석, 인천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전문회의시설·집적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방향을 도출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천시는 국제회의 집적시설 홍보 및 편의시설 개선 지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브랜드 홍보 및 유치 마케팅, 마이스(MICE) 참가자 대상 국제회의 복합지구 이동 편의 개선,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송도국제회의의 복합지구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은 마이스 최적화 도시로, 새로운 관광 마이스 변화에 발맞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천만의 마이스 전략을 마련해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가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같은 공모에서 총 10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세계 최대규모’ ‘아시아 최초’ 중대형 마이스 행사( 2027 IUGG , 2026 직접판매세계대회, 2024 뉴스킨 글로벌 기업회의, 2024 아태풍력서밋 등)를 다수 유치했으며, 송도컨벤시아에 친환경 디지털 숲을 조성(LED 사이니지, 바이오월 설치)하고 마이스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웰컴 셔틀 지원 등 참가자 안내 및 이동 서비스 등 연계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그간 쌓아온 국제 마이스 경험과 국제복합지구 구축을 바탕으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orea MICE Expo)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천 유치를 위해, 국내·외 관계자 팸투어 행사 등 집적시설과 협업 활동을 통해 시너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관련자료] : 국제회의복합지구 관련 사진 첨부

##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